

채팽윤(蔡彭胤) 문집의 이본 검토

- 필사본 『폐추』(弊帚)를 중심으로 -

백승호*

- I. 들어가며
- II. 『회암집』과 『폐추』 이해를 위한 기초적 논의
- III. 『폐추』에서 목판본 『회암집』으로 간행 시 산삭된 시문의 양상
- IV. 나가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새 자료 필사본 『폐추』를 소개하고, 필사본이 목판본으로 간행될 때 산삭된 작품의 특징적 면모를 정리한 글이다. 2023년도 수원화성 박물관 전시에서 채팽윤 문집 『폐추』가 공개되었다. 『폐추』 18권은 『회암집』 29권에 비해 권수는 적지만 더 많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필사본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될 때 산삭된 작품의 주요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가, 인척과의 일상적인 수창이 다수 산삭되었다. 채팽윤의 문학 활동은 장인, 처남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작품이 산삭되었다. 그 결과 목판본에는 작품이 분절적으로 수록되었기 때문에 창작의 맥락과 문학 활동의 배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폐추』는 채팽윤 문학 활동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탁남 문인과 무신란에 연루된 문인과의 친교가 축소 수록되었다. 채팽윤은 기사환국이 일어난 해 문과에 합격하고 독서당에 선발되었는데, 이때 함께 선발된 문인들은 대부분 후대 탁남으로 분류되었던 문인이었다. 채팽윤 당대에는 이들과 깊은 교분을 나누었고 이것이 작품으로 증명되지

*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부교수

만, 목판본에서는 이것이 대폭 축소 수록되었다. 그의 종손 채제공이 채팽운을 청남으로 분류하면서 영조 연간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유 양상을 축소 수록했다.

셋째, 채팽운이 어린 제자들을 자상하게 교육하며 훗날 국가적 인재로 육성하는 모습이 축소 수록되었다. 그는 갑술환국 이후 불리해진 정치적 상황에서 후학 양성에 공을 들였다. 그 가운데 채제공의 스승 오광운이 있었다. 『폐추』에는 오광운의 아명이 실려 있고, 아들처럼 그를 대하는 각별한 정이 표출되어 있다. 필사본에는 다른 어린 제자들에 관한 작품도 수록되었는데, 목판본에는 이 작품들이 대폭 산삭되었고 오광운도 성인 시절 이름과 자로 바꾸어 지칭하였다. 어린 제자들의 시 학습과 일상을 표현한 반복적인 작품이 다수 산삭되었고 오광운 중심으로 채팽운 문하생 관련 작품이 정리되었다.

핵심어: 채팽운, 『폐추』, 『희암집』, 필사본, 이본

1. 들어가며

평강 채씨는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중요한 문인들을 배출한 가문이다. 남인 문학사에서 채유후, 채팽운, 채제공은 남인시맥(南人詩脈)의 결절점 역할을 하며 기라성 같은 문인들을 배출하여 한 시대의 문학을 선도하였다.¹⁾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채팽운은 채유후로부터 이어지는 가문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이서우와 오광운, 강박 사이의 중간 역할을 했던 문인이다.

1) 남인의 오당시맥(吾黨詩脈)에 관해서는 다음 기록 참조. 丁若鏞, 『綺畫櫻帖』, 『與猶堂全書』. “樊翁還余以帖而語之曰: “吾黨詩脈, 自湖洲【蔡裕後】·東州【李敏求】以來, 唯松谷【李瑞雨】得其宗, 而松谷之詩工緻少遠致. 燕超齋【吳尙濂】松門之顔子, 希菴【蔡彭胤】松門之曾子. 嗣此唯藥山【吳光運】·菊圃【姜樸】得其傳. 若吾【吾, 樊翁自道】有不及夢瑞【李良翁獻慶】·法正【丁海左】然後進無所託, 子其勉之.” 채제공 가문의 문학적 위상에 대해서는 윤재환, 「근기 남인 문단에서 변암가 문학의 위상: 채유후, 채팽운, 채제공을 중심으로」, 『고전과해석』 41, 고전문학한문학회, 2023.

현전하는 목판본 『희암집』 29권에는 1800여제 약 3000수 시가 수록되어 있어 채팽윤 문학의 실상을 검토할 수 있다.²⁾ 채팽윤 문학이 갖는 문학적 중요성에 비해 그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의 한시에 관한 연구는 남인 한시사의 구도에서 잠시 언급된 것에 그쳤고, 본격적인 연구는 여운필의 작가론, 박경수의 만시(輓詩) 연구, 박동욱의 채팽윤 양자 관련 한시 연구를 들 수 있다.³⁾

2023년도 수원화성박물관 기획특별전 “평강 채씨 가문의 문장가들”에서는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문중 소장 기증 자료들이 공개되었다. 그 가운데 채팽윤의 문집 목판본 『희암집』(유물 번호 기증 1305)과 필사본 『폐추』(유물 번호 기증 1304)가 전시되었다. 이 문집들은 채팽윤의 문학과 사상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문헌으로서 양자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필사본 『폐추』에 관한 연구로 필사본을 목판본으로 간행하면서 산삭된 자료들의 경향성을 일별하여 채팽윤 관련 후속 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희암집』과 『폐추』 이해를 위한 기초적 논의

채팽윤의 자는 중기(仲耆), 호는 희암(希菴), 은와(恩窩)이다. 부친은 채시상(蔡時祥), 조부는 채유후의 동생 채진후(蔡振後)이며, 증조는 채충연(蔡忠衍)이다. 외조는 권흥익(權興益), 처부는 한후상(韓後相), 유명거(俞命擧)이다.

2) 『희암집』 소재 한시 작품의 수록 편수에 관해서는 박경수, 『희암 채팽윤의 만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면 참조.

3) 여운필, 『희암 채팽윤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9; 박경수, 『희암 채팽윤의 만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박동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문헌과해석』 80, 문헌과해석사, 2017; 박동욱, 『조선시대 양자(養子)의 한 풍경 - 채팽윤의 한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60, 한국고전번역원, 2022. 여운필은 채팽윤 한시가 남인 문단의 상고정신을 추구하되 실제 작품에서는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시 창작에도 큰 관심이 있었음을 주목하였다. 그는 전반적으로 채팽윤 한시의 문예미적 성취를 분석하였으며, 그 한시의 가치가 사회 현실의 비판과 표현의 사실성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경수는 『희암집』 소재 만시를 표로 정리하고 만시의 작품세계를 제제적 특질과 구성적 특질, 표현적 특질로 검토하였다.

채팽윤은 19세 때인 1687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21세 때인 1689년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사가독서에 선발되었는데, 이때 유세명(柳世鳴), 민창도(閔昌道), 이현조(李玄祚), 김문하(金文夏), 홍돈(洪墩), 권중경(權重經)과 함께 선발되었다.⁴⁾ 학사로서 그는 숙종 임금의 총애가 대단했다. 그래서 말년에 더 높은 벼슬을 했지만, 당대 문인들은 그를 채학사(蔡學士)로 지칭하였다.⁵⁾ “평소 임금님 얼굴 알지 못했는데, 꿈에서는 늘상 옥섬들을 맴도네”[平生不識君王面 一夢尋常繞玉墀]⁶⁾ 시 구절은 그의 대표작으로 인구에 회자되었다. 홍문관 학사 시절 숙종이 액례를 보내 그의 뒤를 늘 따라다니며 그가 작품을 지으면 곧 베껴 올리게 했다.⁷⁾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그의 줄기가 이러한 그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대표하므로 인용한다.

채팽윤은 6, 7세 때부터 신동으로 이름이 났으며, 19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1세 때 과거에 합격하여 한림으로 독서당(讀書堂)에 뽑혔다. 숙종이 항상 액례로 하여금 번복(變服)을 하고 그 뒤를 따르게 하여 매양 한 편의 시가 나오면 번번이 베껴서 대내(大內)로 들어가니, 이에 시명이 온 세상에 진동하였다. 중년 이후에는 전야(田野)에 물러나 살며 더욱 문장(文章)에 힘을 쏟으니, 그 시가 왕양(汪洋)하고 장려(壯麗)하였다. 영종조에 벼슬이 예문관 제학에 이르렀으며, 63세에 졸하였다. 『희암집』 29권이 세상에 전한다.⁸⁾

이 줄기를 보면 그의 일생에서 ‘신동’이었다는 점, ‘독서당’에 선발되었다는 점, 숙종이 아낀 시인으로 시명을 떨쳤다는 점, 그리고 재야에 물러나 있으면서 문학에 전념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가 대단한 시인이었지만 장년기의 대부분을 재야 문인으로 은거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그는 영조 초반에 김창흡에 비견되는 시인으로 지칭되었다. 강준흠의 『삼명시화』에 다음과 같이 김창흡과 채팽윤을 시의 대가로 병칭하였다. 즉 당대 문단에서 남인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노론의 김창흡과 견줄 만한

4) 『숙종실록』 숙종15년(1689) 12월 19일(신사) 기사 참조.

5) 이익, 『蔡學士詩』, 『星湖僊說』 권28.

6) 채팽윤, <臘月十一日賜樂湖堂途中口號>, 『希菴集』 권2. 숙종의 융숭한 대우는 실록에도 기록된 바 있다.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1691) 10월 11일 임진 기사 참조.

7) 蔡濟恭, <希菴集序>, 『希菴集』 참조.

8) 『영조실록』 영조 7년(1731) 12월 29일(무오) 기사 참조.

시인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영조 초년에는 채팽윤과 김창흡이 시의 대가로 일컬어졌다. 그 뒤에는 국포 강박, 청담 이증환, 사천 이병연이 명가이다. 또 그 뒤로는 간옹 이현경, 여와 목만중이 대가이며, 해좌 정범조, 빈암 채제공이 명가이니, 모두 손꼽을 만한 시인이다.⁹⁾

실록의 줄기에도 언급되었듯이 그는 천재적인 문학적 재능을 타고났으며, 21세에 문과에 합격하여 일찍부터 시명을 날렸으며, 한시를 신속하게 지으면서, 다작을 남겼다고 한다. 또한 그의 시는 두보를 배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정두경에 필적할 정도로 가행체에도 능했다고 평가받았다.

고조 박천공(博泉公) 이옥(李沃)은 평생 두시(杜詩)를 좋아했고, 부계학 권해(權階)는 당시(唐詩)를 좋아하여 서로 수창한 시가 수십 편이다. 한 시대 사대부들이 너도나도 사모하고 본받았다. 회암 채팽윤이 뒤이어 일어나 세상에 널리 명성을 떨쳤으니, 회암의 시 역시 두보의 시어를 배운 것이다.¹⁰⁾

우리나라의 가행장편(歌行長篇)은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는데, 회암 채팽윤이 나온 뒤로 동명을 독보적인 존재로 놓아두지 않았다.¹¹⁾

이상에서 검토한 시화의 내용처럼 채팽윤 한시는 당대 문인들의 고품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문학 세계를 언급할 때 중요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시대적 배경이 있다. 그것은 숙종 연간 환국이 청장년 시절 그에게 미친 영향이다. 1694년 갑술환국 이후, 다시 말해 20대 중반 이후에 그는 일시적으로 남포(藍浦) 현감을 지냈을 뿐 조정에서 배제되어 재야에 머물렀다. 그가 성균관 유생 시절, 이이와 성혼의 문묘출향(文廟黜享)을 청한 상소에 이름을 올렸던 것이 번번이 그의 환로를 막았다. 양양, 무주 등지의 외직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숙종이 승하한 이후의 일이었다. 그가 영조 연간 무신란 평

9) 강준흠, 『삼명시화』,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소명출판, 2006, 257면.

10) 이경유, 『창해시안』, 장유승, 부유섭 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67면.

11) 이경유, 위의 책, 68면.

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후에야 특별히 조정의 요직에 발탁될 수 있었다. 최만년인 60세를 전후하여 승지, 예문관 제학, 병조 참관을 지냈으니, 거의 30여 년을 재야에 머물렀다고 하겠다.

채팽윤의 일생은 갑술환국 이후의 남인에게 매우 불리했던 정치적 상황에서 서울과 흥성을 왕복하며 재야에서 시문에 공들인 것으로 거칠게 요약될 수 있다. 화국(華國)을 꿈꾸었던 천재적인 문인이 막 꿈을 펼칠 즈음에 큰 좌절을 겪었고 백발이 될 때까지 산림에 머물면서 ‘곤궁과 영달, 성공과 실패, 쾌락과 근심을 한결같이 시문에’ 모두 쏟아부은 것이 『희암집』 소재 한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목판본과 필사본의 구성 차이에 관해 개괄하기로 한다. 목판본 『희암집』은 1775년 체제공이 평안도 관찰사에 부임했을 때 간행하였다. 총 29권 1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수에 체제공이 지은 서문이 실려 있다. 권1은 부(賦)이고 권2부터 권20까지 시(詩)가 수록되어 있다. 시체와 무관하게 작품의 대략적인 창작 연도에 따라 시가 배열되어 있다. 권21부터 권29는 산문이 실려 있는데, 권21은 소(疏)와 서(書), 권22는 서(序) 권23은 기(記), 권24는 비명(碑銘) 갈(碣), 지(誌), 권25는 상량문(上樑文), 모연문(募緣文), 속산서(續山書), 권26은 제문(祭文), 권27은 회(誄), 사(辭), 고문(告文), 권28은 제발(題跋), 논(論), 설(說), 잡저(雜著), 유사(遺事), 장(狀), 기우문(祈雨文), 찬(贊), 명(銘), 책(策), 전(箋), 지(誌)가 수록되어 있다. 권 말에는 채홍리(蔡弘履)의 발문이 실려 있다.

필사본 『폐추』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필사본의 권수제는 폐추이고, 표제는 희암집이다. 폐추는 ‘몽당빚자루’라는 뜻으로 조비(曹丕)의 『전론』(典論)에서 “집에 몽당빚자루가 있는데 천금처럼 애지중지한다”[家有弊帚 享之千金]는 구절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자기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하는 말이다.

‘몽당빚자루’라는 겸사(謙辭)를 사용해 문집의 제목을 사용한 데서 이 필사본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이 문집은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찬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권수제가 의미하는 바는 채팽윤 본인이 명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후손이나 제자가 감히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폐추』는 채팽윤 본인 대에 원고를 정리한 필사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1>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필사본 『폐추』 권수면

필사본 『희암집』은 시문의 편차 면에서 목판본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문집의 구성이 18권 18책으로 목판본 29권 14책과 차이를 보인다. 권수에 채제공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권1부터 권14까지는 각체의 시가 창작 시기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목판본 간행 시 누락된 작품이 상당수 있어 본격적인 작품 비교가 필요하다. 권15부터 권18까지는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몇몇 작품이 누락되었고 편차 구성에서는 목판본과 큰 차이를 보인다. 권말에 채홍리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필사본과 목판본의 편차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필사본 『폐추』와 목판본 『희암집』 편차 비교표

필사본 『폐추』	목판본 『희암집』
권1 부, 시	희암집 서
	권1 부
권2 시	권2 시
	권3 시
권3 시	권3 시
	권4 시
권4 시	권4 시
	권5 시
권5 시	권5 시
	권6 시
권6 시	권6 시
	권7 시
	권8 시
권7 시	권8 시
	권9 시
권8 시	권9 시
	권10 시
권9 시	권10 시
	권11 시
	권12 시
	권13 시
권10 시	권13 시
	권14 시
	권15 시
권11 시	권15 시
권12 시	권16 시
	권17 시
권13 시	권18 시
	권19 시
권14 시, 습유	권19 시

	권20 시
권15 서(書), 소, 기, 서(序)	권21 서(書), 소
	권23 기
	권22 서(序)
권16 제문, 퇴, 애사, 고문	권26 제문
	권27 퇴, 애사, 고문
권17 기우문, 상량문, 비명, 갈, 지	권29 기우문
	권25 상량문
	권24 비, 갈, 지
권18 잡저, 책, 설, 론, 모연소, 유사, 찬, 제발, 장, 전, 명, 속산서, 지	권28 잡저
	권29 책
	권28 설, 론
	권25 모연소
	권29 유사
	권28 잡저
	권25 권선문
	권28 잡저
	권29 찬
	권28 제발
	권28 장
	권28 전
	권29 명
	권25 속산서
	권29 지 희암집발

필사본 『폐추』에는 제목 교정, 자구 교정 표시가 곳곳에 있는데, 이 내용이 목판본으로 간행될 때 대부분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산삭된 작품에는 ‘산(刪)’이라고 서미(書眉)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산삭된 작품이 있다. 산삭된 한시는 분량상 모두 열거할 수는 없다. 산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작품이 산삭되었다.

「與龍岡李使君待而書」, 「報博泉台丈書」, 「辭同副承旨疏-乙巳二月」, 「辭都承旨疏」, 「辭同義禁疏」, 「辭大司諫疏」, 「金剛山長安寺復大雄殿記」, 「贈陟州李使君-東標-序」, 「奉送伯氏飛仙督郵行軒」, 「贈送玉山李使君-淳-詩序」(이상 『폐추』 권15)

「金剛山重建長安寺佛像營造募緣疏」, 「長安寺重建後丹青龕營造募緣疏」, 「鷲棲山通度寺世尊碑塔勸善文」, 「題李侍郎-玄錫-花山錄後」, 「冬至巡營禮狀」, 「禮狀草」, 「玉川到任禮狀-代人作」, 「上任後呈巡營禮狀」, 「誕日箋文-代巡相作」, 「付太廟陳賀箋」, 「大殿陳賀箋-代巡相」, 「大妃殿陳賀箋-代巡相」, 「王世弟入學陳賀箋文-代巡相」, 「誕日陳賀箋文-代巡相」, 「昌道驛舍逢金剛僧問答」, 「擬授韓翊知制誥制」(이상 『폐추』 권18)

이상이 필사본을 목판본으로 간행할 때 산삭된 산문 제목이다. 총 26편의 산문이 산삭되었다. 다른 산문은 비록 편차에 선후 변경이 있거나 제목에 수정은 있을지언정, 목판본에 새로 추가된 글은 「주계서원상량문」(朱溪書院上樑文) 1편이다. 이 글도 새로운 글이 아니라 교정하는 과정에서 권18에 수록된 「주계강당지」(朱溪講堂誌)에서 「주계서원상량문」 내용을 발췌해서 목판본에 독자적인 작품으로 분리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전편 산삭은 아니지만 「종조호주선생집후유사」(從祖湖洲先生集後遺事)에서 일부 기사가 산삭되었다.¹²⁾

III. 『폐추』에서 목판본 『희암집』으로 간행 시 산삭된 시문의 양상

앞 장에서는 목판본 『희암집』과 필사본 『폐추』의 구성 차이를 검토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목판본 간행 시 산삭된 시문의 대략적인 경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채팽윤의 원고는 조카인 채응일(蔡應一)과 종손 채제공의 산정

12) 채팽윤, 「從祖湖洲先生集後遺事」, 『弊帚』 권18. “仁廟乙亥, 我王父抗疏論李珥成渾文廟從祀非是, 仍歸湖中, 公以詩別曰: 時俗謗君文字上, 江山阻我別離情.” 채진후의 상소 관련 기록은 『인조실록』 인조 13년 5월 11일(경신) 기사 참조.

과정을 거쳐 간행되었다. 채팽윤 본인이 문집 편찬을 완성하였는데, 후손이 다시 산정 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후대의 상황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채팽윤 서거 삼십 년 뒤인 1761년 채제공은 채팽윤에게 제문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보면 문집 산정에 관한 언급이 보인다.

世無先生	세상에 선생이 안 계신 지
于三十禩	삼십 년이 되었네
其書滿家	그 글이 집에 가득하나
塗乙無次	교정과 수정에 두서가 없었네
(중략)	
小子不肖	소자는 불초하나
用是爲揚	이 때문에 두려워하여
妄不自量	망녕되어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方始爬剔	바야흐로 산삭하기 시작하였네
(중략)	
凡厥起疑	무릇 의심이 들 적마다
輒質吾親	나의 부친에게 질정받았네.
(중략)	
鍔梓之役	판각하는 일은
惟待事力	사세와 재력을 기다렸네 ¹³⁾

이 제문을 보면 채제공이 채팽윤 문집 원고의 수정에 두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본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때로는 부친 채응일에게 질정 받았음을 밝혔다. 채응일은 문재(文才)가 있어 채팽윤이 생전에 아끼던 조카였고, 그를 따라 여러 문학 활동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채팽윤 문집의 산정에는 채제공의 정치적 또는 문학적 입장이 반영되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필사본과 목판본 사이의 작품 수록 차이를 일일이 검토하였고 그 검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결과 같은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

13) 蔡濟恭, 『祭從祖祖父希菴先生墓文』, 『樊巖集』 권37. 번역은 채제공, 『변암집』 10, 김정기 역, 한국고전번역원 2021, 112~113면을 따랐다.

1. 처가 및 인척과의 일상적인 수창

채팽윤의 청년기에 채명윤(蔡明胤), 채성윤(蔡成胤) 등 형제들과의 일상적인 수창이 문학 세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희암집』 권2 「영주록」(瀛洲錄)은 오대산 사고에 포쇄(曝曬)하러 가는 둘째 형 채성윤과 여정을 함께 하면서 지은 작품 모음집이다.¹⁴⁾ 이처럼 형제들과 수창한 한시는 문집에 그래도 대부분 수록된 편인데, 장인, 처남, 그 외 인척들과의 수창시는 상당수 산삭되어 교유의 실체가 축소 반영되었다.

그의 청장년기 한시가 한강 일대에서 다수 창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처가의 전장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장인 한후상(韓後相)은 한중겸(韓重謙)의 증손으로 한중겸의 형인 한백겸(韓百謙)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다.¹⁵⁾ 한백겸의 구암(久菴)이 지금의 상암동 일대 물이촌(勿移村)¹⁶⁾에 있었는데, 채팽윤도 처가와와의 인연으로 이곳을 자주 찾았다.

강가에서 장인어른의 시운을 차운하여 짓다.

<江上次岳丈韻>¹⁷⁾

城南一置到江頭
十載多爲半日遊
芳樹雨新春欲遍
快帆風好暮難休

深居世外看黃髮
遠意簾前對碧流
槐岸竹坡通釣徑
笑從漁父立爭洲

성 남쪽에서 곧바로 강가로 와서
십 년 동안 반나절 유람을 많이 하였네.
아름다운 나무에 새로 비가 내려 봄날이 만발하려고 하고
빠른 돛배에 바람이 좋아서 해 저물어도
유람을 그만두기 어렵네.
속세 밖에 깊이 은거하시면서 늙어가시는데
주렴 앞에 고원한 뜻을 지니고서 푸른 강을 마주하시네.
회나무 언덕, 대나무 고개는 낚시터 길로 통하니
웃으며 어부 따라 물가를 다투시는구나.

14) 강릉은 외가의 쪽 선조 묘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15) 부친은 한이명(韓以明), 조부는 한흥일(韓興一)이다. 생부는 한석명(韓錫明), 조부는 한덕일(韓德一)이다.

16) 한백겸의 물이촌과 채팽윤의 물이소에 관해서는 이종묵,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 서호편』, 경인문화사, 2016, 231~242면 참조.

17) 蔡彭胤, <江上次岳丈韻>, 『弊帚』 권7.

처남 한종석(韓宗奭)은 『폐추』 여러 권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인이다. 1661년생으로 채팽윤보다 8살 연상이며, 1687년 채팽윤과 함께 진사시에 합격한 동방(同榜)으로 인척이자 동지로서 그 인연이 깊다. 채팽윤이 청년 시절 함께 뱃놀이를 하며 지은 다음 시를 인용한다.

상사 한종석, 한종주와 함께 빙호에서 배를 띄워 바둑섬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대은정(戴恩亭)에 배를 정박하고 운자를 불러 취해서 읊었다.

<同韓上舍永叔·宗奭·華叔·宗周 自水湖泛舟 至碁子島還泊戴恩亭下, 呼韻醉賦 二首>¹⁸⁾

烟樹江山畫較難	안개 긴 강산이 그림처럼 아름다운데
暫憑篷底設詩壇	잠시 배 안에서 시단을 열었네.
笑呼童子教垂釣	웃으며 동자를 불러 낚시대 드리우는 법 가르치고
醉倩長年爲整冠	취해서 뱃사공으로 하여금 내 관을 바로잡게 하네.
碁島雨添春浪足	바둑섬에 비가 더해지니 봄물이 넉넉하고
豆湖花送夕風寒	두모포로 꽃을 보내는데 저녁 바람이 차네.
近汀樓閣皆楊柳	물가 가까운 누각에는 모두 버드나무 늘어섰는데
多少朱欄隔岸看	언덕 너머로 얼마나 많은 붉은 난간 보일까.

처가의 전장이 한강나루 근처 빙호(氷湖)에도 있었기에 건너편 바둑섬¹⁹⁾까지 뱃놀이를 하고 돌아온 풍경을 읊은 것이다.²⁰⁾ 대은정은 서빙고 동쪽 언덕 한강변에 있었던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정자이다.²¹⁾ 처가 식구들과 즐거운 뱃놀이를 열고 그 안에서 시회를 여는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주변 명소들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를 알게 해 주는 작품이다.

채팽윤이 문집을 산정할 때 한종석에 관한 시를 대폭 산삭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1694년 5월 26일 소두(疏頭)로 이이와 성혼의 문묘 복향

18) 蔡彭胤, <同韓上舍永叔·宗奭·華叔·宗周 自水湖泛舟 至碁子島還泊戴恩亭下, 呼韻醉賦 二首> 『弊帚』 권2.

19) 碁子島: 바둑섬은 한강의 동작진 위에 있었던 작은 섬이다. 현재의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있었다.

20) 채팽윤의 빙호에 관해서는 이종묵,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남호편』, 경인문화사, 2016, 53~58면 참조.

21) 인평대군의 대은정에 관해서는 이종묵, 위의 책, 26~32면 참조.

(復享)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것이 조정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갑술환국 직후에 올린 이 상소로 인해 그는 먼 지방으로 유배를 갔고 이후 환로가 막혔다. 그래서 그가 채팽윤 문학 활동의 중요한 동반 인물 중 한 명이었음에도 관련된 시문이 대폭 산삭된 것이다. 아울러 채팽윤 문학 활동의 공간이었던 한강 유역의 물이동과 빙호 일대에 관한 시문도 간행 시 다수 누락되었다. 그 결과 목관본에서는 문학 활동의 맥락이 생략된 채 몇몇 작품만 선별 수록되었다. 다음으로 한중석이 유배를 떠날 때 채팽윤이 지어 준 시 일부를 인용하면서 양자 간의 정의가 깊었음을 증거하고자 한다.

한중석이 강진으로 유배가는데 병 때문에 따라가 전송하지 못하였다. 삼가 송지문의 <별두심언>(別杜審言)의 시의 시 구절로 운자를 나누어 절구 이십 수를 지어 내 그리움을 드러내 보이며 시를 짓고 이선여(李善餘)로 하여금 글로 적어 전별하고자 한다.

<韓永叔耽津之謫，病不能追而送之，謹以臥病人事絕，嗟君萬里行，河橋不相送，江樹遠含情之句，分韻作二十絕，以泄其思口號 令李善餘書之爲贖>²²⁾

朝疏暮投荒	아침에 상소문 올리고 저녁에 유배를 가니
布衣驅弱馬	포의 선비가 약한 말을 몰고 가네.
斯文欲墜地	사문이 땅에 떨어지려 하니
不忍安高臥	차마 편안히 누웠을 수 없구나.

유배가는 한중석을 전별하며 지어 준 20수의 오언절구 가운데 첫 번째 시이다. 제목을 통해 창작 상황을 유추해 보면 그를 위해 매우 공들여 위로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짐작된다. 채팽윤 본인도 성관판 유생 시절 이이 성혼의 문묘 종사에 반대하는 상소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가 환로가 막혔으니, 갑술환국 이후 유배가는 처남의 신세에 공감하는 바가 컸을 것이다. 사문이 땅에 떨어지려 한다는 것은 유배가는 사람을 위로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울 문묘 복향의 시점이기 때문에 기휘할 만한 내용으로 보아 채제공이 산삭한 것이다. 산문에서도 우울 문묘 종사에 관한 내용을 채진후의

22) 蔡彭胤, <韓永叔耽津之謫，病不能追而送之，謹以臥病人事絕，嗟君萬里行，河橋不相送，江樹遠含情之句，分韻作二十絕，以泄其思口號 令李善餘書之爲贖>，『弊帚』권4.

유사에서 부분 삭제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³⁾ 다음은 몇 년 뒤에도 유배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처남에게 부치는 작품이다.

한중석에게 부치다.
 <寄韓上舍永叔>²⁴⁾

愁眼逢春淚暗揮	수심에 찬 눈빛으로 봄날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니
思量十事九相違	생각건대 일 가운데 열에 아홉은 어긋났구나.
詩成百感無人和	시를 짓고 나서 온갖 감정이 들건만 화답할 사람이 없어
書寄三山有鴈歸	삼산에 편지를 부치려니 기러기가 돌아오네.
官柳雪消靑稍稍	관가의 버들에 눈이 녹아 푸른 빛이 차츰차츰 돋고
海天潮拍白霏霏	바닷가에 조수가 쳐서 흰 물결이 우수수 부서지네
東風每夜吹回夢	봄바람이 매일 밤 돌아올 꿈을 불어오는데
南巷茅茨半是非	남쪽 골목의 초가집은 거의 옛 모습이 아니라네.

전후 수록 작품의 창작 시기로 미루어 볼 때, 이 작품은 1708년 1월 즈음 작품이다. 여전히 강진에서 유배 중인 처남의 신세와 지음되었던 처남과 떨어진 자신의 그리움, 그리고 정치 투쟁에서 패배해서 초라해진 형국을 시에서 잘 담아내었다.

이외에도 사가독서에 함께 선발된 고종사촌 흥돈과도 교류가 깊었는데, 그와 주고받은 일상적인 수창 작품이 상당수 산삭되었다. 간단히 한 작품만 인용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23) 이이, 성혼의 문묘 종사에 관한 반대는 채팽윤 집안의 오래된 논의이기도 했다. 그의 조부 채진후도 동일한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가 귀향할 때 형 채유후가 다음과 같은 시를 주었다고 한다. 현재 『호주집』에는 전후 맥락없이 해당 시구절만 절록되었는데, 그 전후 사정을 채팽윤이 『폐주』 권18에 남겨 두었다. 그러나 문집 출간 시 산삭되었다. 이 구절이 산삭된 이유는 『호주집』에 해당 시문이 실려 있어 중복된 것이어서 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율곡 우계 문묘 종사가 노론의 당론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24) 蔡彭胤, <寄韓上舍永叔>, 『弊帚』 권9.

재빨리 두 번째 작품을 써서 석포에 부쳐 화답시를 구하다.

<走筆再疊, 却寄石浦求和>²⁵⁾

西湖一面就農桑	서호 한쪽 방면에서 농사 짓고 누에 치는데
流水青山夾小庄	푸른 산 흐르는 물이 작은 전장을 끼고 있네.
此味祇應梧隱覺	이러한 맛을 응당 다만 오은께서만 깨달았으니
滿園秋葉睡匡床	낙엽 트락 가득한 가운데 침상에서 즐기고 계시지.

시에 등장하는 오은(梧隱)은 홍돈의 별호이다. 그의 본관은 남양, 부친은 홍우희(洪宇熙), 조부는 홍휘(洪彙), 증조가 홍경신(洪慶臣)이었다. 그의 외조부가 채팽윤의 조부인 채진후(蔡振後)였으니, 두 사람은 내외종 관계였다. 그는 1654년생으로 채팽윤보다 15세 연상이었으며 통진 석포리에 전장을 갖고 있었다. 1689년에 채팽윤과 사가독서를 함께 하였고, 1689년 채팽윤과 동년에 문과에 합격한 뒤 홍문관 응교 벼슬을 지낸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청년기 처가 및 인척과의 교유는 일상적인 수창과 연작이 많아 문집 산정 과정에서 산삭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작품들이다. 그렇지만 한중석의 경우처럼 교유 및 문학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었 으면서도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교유를 축소시켜 목판본에 반영한 상황도 존재한다.

이 절에서는 인척과의 친밀한 교유가 대폭 산삭된 경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강 남호 일대에 채팽윤 문학 활동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재구할 수 있었으며, 산삭으로 인해 목판본에서 절락된 작품 창작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다.

2. 탁남(濁南), 무신란(戊申亂)과 관계있는 문인과의 친교

채팽윤이 문과에 합격하고 본격적으로 출사한 시기는 기사환국의 시점과 일치한다. 이때 그는 독서당에 선발되었는데, 함께 사가독서한 문인들과 교유가 깊었다. 그런데 갑술환국과 무신란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후대인의 입장에서 당대의 교유 양상을 문집에 그대로 실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

25) 蔡彭胤, <走筆再疊, 却寄石浦求和>, 『弊帚』 권2.

다. 그래서 채팽윤 당대에 편찬이 완료된 『폐추』와 채제공이 산정하여 간행한 목판본 『희암집』 사이에는 훗날 탁남으로 분류되는 문인, 무신란으로 논란이 야기되었던 문인과 채팽윤 사이의 친밀했던 교유가 축소 또는 산삭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우선 초사(初仕) 시기 승지 권중경(權重經)과 주고 받은 시가 다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편을 인용한다.

직려에서 감회를 적어 승지 권중경에게 보이다.

<直廬書懷示權道一承旨>²⁶⁾

關心世事靜中多 閑夜挑燈數撲蛾 喉院狂吟元有禁 醉鄉豪飲且無何 微風蓋轉鸞坡樹 清露珠團鳳沼荷 每道欲歸君莫笑 朝衣已當釣魚簑	고요한 가운데서도 세상일에 관심이 많아 한가로운 밤에 등불 돌우며 달려드는 나방을 쫓아내네. 승정원에서 제멋대로 시 읊조리는 것은 원래부터 금지되어 있지만 취향(醉鄉)에서 실컷 마시는 것 또한 어찌하지 못하네. 산들바람에 일산 마냥 나무 숲이 흔들리고 맑은 이슬은 구슬처럼 연못의 연꽃에 동글동글 맺히네. 매번 귀거래하리라 말하는 나를 그대는 비웃지 마소서. 조복은 낚시 도롱이 사느라 이미 지당잡혔다오.
--	--

3수 가운데 첫 번째 시를 인용하였다. 채팽윤이 이 시 외에도 여러 편의 시를 권중경에게 보냈고 갑술환국 이후의 시기에도 그에게 시를 보낸 적이 있다. 권중경은 기사대신(己巳大臣) 권대운(權大運)의 손자이다.²⁷⁾ 대사성, 이조참의를 역임했으나 갑술환국 때 고군산도에 위리안치되었다. 경종 연간에 다시 등용되어 관찰사를 지냈지만 종질인 이인좌가 난을 일으키자 자결하였다.²⁸⁾

민창도와는 사가독서를 함께 한 인연으로 절친하였다. 민창도는 기사대

26) 蔡彭胤, <直廬書懷示權道一承旨>, 『弊帚』 권3.

27) 권중경은 채제공과 교류하는 만어(晩漁) 권사언(權師彦)의 조부이기도 하다.

28) 이인좌의 부친 이흥덕이 기사대신 권대운의 외손자이다. 이흥덕과 권중경은 내외종사촌지간이다. 이인좌의 난에 남인 명문가 후손들이 연루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백승호, 『변암 채제공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참조.

신 민암(閔黯)의 조카인데, 벼슬이 성균관 대사성에 이르렀다. 채팽윤은 갑술환국 이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그와의 변함없는 우정을 언급하며 시를 보냈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시들이 산삭되었다. 두보가 이백에게 부친 <기이십백이십운>(寄李十二白二十韻)에 차운한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민창도 영공이 무탈하신데, 내가 바빠서 편지를 보내지 못했다. 삼가 두보의 <기이십백이십운>(寄李十二白二十韻) 시를 본떠 붓 가는 대로 써서 삼가 올리니 시가 아니라 내 그리움을 드러냈을 뿐이다. 삼가 빙그레 웃으시고 화답해 주시오.

<閔士會令公無恙 人忙卒卒不能書, 謹用老杜寄青蓮二十韻 信筆草程, 非以詩也, 泄吾之思耳. 伏惟莞而辱和>²⁹⁾

落落二三子	현걸찬 우리 동지들이
悠悠南北人	아득하게 남과 북으로 흩어졌네.
風塵不見面	풍진 속에서 얼굴 보지 못하고
嶺海各馳神	산과 바다에서 각각 서로 그리워하네.
世故仍存沒	세상일로 인하여 산 이도, 죽은 이도 있고
天機有屈伸	천기(天機)에는 진퇴가 있네.
往時俱授簡	지난날 함께 조정에서 글을 지을 때 ³⁰⁾
之子獨殊倫	당신 홀로 우리 무리에서 빼어났었지.
眇思常超古	신묘한 생각은 늘 옛것을 초월하였고
鉤章必出新	문장을 엮을 때는 반드시 새로움을 보였네.
織毫入沆瀣	세밀한 붓으로 신선의 경지에 들었으니
一字忌埃塵	한 글자도 속된 것을 꺼렸다네.
(중략)	
海岸求田日	바닷가에서 밭을 구하고 있고
山齋伏枕辰	산속의 집에서 엎드려 있네.
仙期違李郭	이응과 곽태처럼 신선 유람 떠나자는 기약 저버렸지만 ³¹⁾
交態憶雷陳	뇌의(雷義)와 진중(陳重)과 같은 교유가 그림다네. ³²⁾

29) 蔡彭胤 <閔士會令公無恙 人忙卒卒不能書, 謹用老杜寄青蓮二十韻 信筆草程, 非以詩也, 泄吾之思耳. 伏惟莞而辱和>, 『弊帚』 권4.

30) 수간(授簡)의 고사는 사혜련(謝惠連)의 <설부(雪賦)> 참조.

31) 이곽선주(李郭仙舟)의 고사는 『後漢書』 권68, 『郭泰列傳』 참조.

蕭瑟追遊地	유람하던 곳 쓸쓸한데,
幽懷寂寞濱	적막한 물가는 으스스하고 괴이하겠지.
憑書有雙鯉	편지를 부쳐 보낼 쌍 잉어가 있을 테니
漢水接興津	한강은 흥진과 서로 접해 있다네.

갑술환국 직후에 지은 작품이라 정치적 함의가 의미심장하다. 시의 처음 단락에 환국 이후 불리해진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였다. 두 번째 단락은 민창도의 빼어난 문학 재능과 그의 문학지향을 말하였다. 중략 이후 마지막 단락에서는 민창도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겹쳐 이야기 하였는데, 이응과 광태의 고사, 뇌의와 진중의 고사를 언급하면서 둘 사이의 깊은 우정을 전고를 활용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비록 유배지에 있지만 서신 왕래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시상을 맺었다. 그렇지만 민창도의 아들 민원보(閔元普)가 훗날 이인좌의 난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후손의 입장에서 볼 때, 환국 이후 시대 인식에 대한 언급, 탁남 문인과의 우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그대로 둘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기사대신 목래선에 관한 만시³³⁾, 갈암 이현일에 관한 만시도 산삭되었다.³⁴⁾ 훗날 체제공은 숙종 연간의 청남, 탁남의 구도를 언급하면서 중조부 채팽윤을 청남의 대표적 문인 중의 한 명으로 언급하였다.³⁵⁾ 그렇지만 『폐추』를 통해 보면 당대 남인의 문학적, 정치적 구도가 판연하게 청남, 탁남으로 구분되지는 않는 복합적인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갑술환국, 무신란 등 후대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선대의 교유를 수정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무신란의 경우 영조 연간 정치 상황에서 각별한 기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유 양상이 축소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2) 뇌의와 진중의 깊은 우정에 관한 고사는 『후한서』 권81, 『獨行列傳』 참조.

33) 蔡彭胤, <睦左相-來善-輓>, 『弊帚』 권7.

34) 蔡彭胤, <李判書-玄逸-輓>, 『弊帚』 권8. 이 시는 『갈암집』에는 수록되었는데, 『희암집』 출간할 때에는 산삭되었다. 체제공이 문집을 산정할 당시로서는 갈암 이현일의 처분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던 시점이었고, 시의 내용도 기휘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산삭한 것으로 짐작된다.

35) 『정조실록』 정조 12년(1788) 12월 26일(계축) 기사 참조.

3. 남인 명사 유년기 교육 양상

『폐추』를 보면 밭새(憎鐵)라는 문인이 자주 등장한다. 장년 시기 채팽운은 후학들의 학문 지도에 심혈을 기울였다. 밭새는 그때 거둔 어린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나중에 채제공의 스승이 되는 오광운(吳光運)의 아명(兒名)이다. 목판본에는 오광운의 성년 이후의 이름과 자가 반영되었지만 『폐추』에는 그의 아명이 노출된 상태의 작품명을 그대로 두었다. 그 외 채팽운이 동자 시절부터 거두어 생원 진사시에 합격시키고 문과에도 합격시킨 남인 명사들에 관한 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³⁶⁾ 전반적으로 채팽운이 30대 때 거둔 제자들과 함께 지은 시들, 어린 제자들을 그리워하는 시들이 문집 간행 시에는 상당수가 산삭되었고, 오광운 관련 시문은 상당수 남겨 두었다고 하겠다.

오광운은 어린 시절부터 채팽운에게 나아가 배우면서 각별한 문하생이 되었다. 대략 1702년을 추석 직후에 채팽운이 고향에 가는 길에 오광운, 권신 권침 세 동자에게 시를 남겨 주었으니, 이 시기에 사제의 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광운이 1689년생이므로 13세 즈음 채팽운의 문하에서 글을 배운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준 작품 가운데 한 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오밭새에게 주다.

<贈吳生憎鐵>³⁷⁾

衆楚交咻奈爾何	초나라 사람들이 떠들어대니 너를 어찌할까나 ³⁸⁾
莫隨流俗與同波	시속과 한 물로 따라가지 말거라.
機頭蜀錦須刀尺	베틀에 걸린 촉나라 비단도 모름지기 재단을 해야 하고
璞裏荆珍急琢磨	박옥 속의 형옥도 긴급히 탁마해야 한다네.
經術會應資遠大	경술은 응당 원대한 바탕이 있어야 하니
詞華奚翅直么麼	문장이 어찌 다만 그것뿐이겠느냐.
龍種粗識彫蟲技	못난 내가 글 짓는 재주를 조금 알아가지고

36) 권신(權晝, 1689~1756, 字 邦瑞), 권침(權蹠 1685~1717, 字 子羽), 권해(權駭 1682~1757, 字 子精)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목래선의 손자들도 동자 시절 채팽운에게 사사하였다.

37) 蔡彭胤, <贈吳生憎鐵>, 『弊帚』 권7.

38) 『맹자』 『등문공하』 “一齊人傅之, 衆楚人咻之, 雖日撻而求其齊也, 不可得矣.”

喚作君師也自多 네 스승이라 불리니 또한 영광이구나.

이 시의 주지는 오광운이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부단히 노력해서 경전에 근거하며 제대로 문학을 수련하라고 가르침을 내려주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학습자가 한시 공부하는데 유용한 전고를 다수 사용하여 스승이 제자의 시 학습에 도움을 주려고 한 모습도 보인다. 수련은 『맹자』 『등문공하』의 유명한 구절을 점화하였고, 함련에서도 촉백, 박옥, 도척(刀尺) 절차탁마 등 구절구절마다 전고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시 학습의 단계에서 필요한 학습 내용이다. 시를 주어 정을 표현한다는 목적과 제자의 시 학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약산만고』에는 30대 이후의 시만 수록되고 어린 시절 시문이 누락되었는데, 『폐추』를 통해 오광운의 유년기, 청소년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다음에 인용하는 시는 『회암집』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어린 오광운이 채팽윤을 각별하게 따르고 채팽윤도 그를 자식처럼 생각했음을 잘 알게 해주는 작품이므로 인용한다.

오몹새가 전별 인사하러 왔다가 눈물을 흘리기에, 마침내 그 손 잡고 그 집에 데려다주며 시를 준다

<吳生僧鐵來別垂涕 遂携至其家留贈>³⁹⁾

枉道回余轡	길을 벗어나 내 말고삐 돌린 것은
交頤見爾心	뺨 가득한 눈물에서 네 마음을 보아서라네.
縱然三月淺	비록 3개월 얇은 만남이었지만
何翅百年深	어찌 백 년의 깊은 마음뿐이겠느냐.
舊侶須敦好	옛 벗들과는 모름지기 돈독히 지내고
新詩勿廢吟	새로운 시를 꼭 짓도록 하여라.
春風有北鴈	봄바람 불면 북쪽 기러기 편에 편지 부치렴
一字是千金	한 자 편지는 천금과도 같으니.

훗날 채응동(蔡應叢)을 양자로 들이지만 30대 중반까지 자식이 없었던

39) 蔡彭胤, <吳生僧鐵來別垂涕 遂携至其家留贈>, 『希菴集』 권8, 『폐추』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다.

채팽윤에게 오광운은 자식과 같은 제자였다. 그는 홍성에서 서울로 올라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1703년 1월 20일 즈음 잠시 귀향할 때 지어준 작품이다. 당시 여러 제자가 그와의 이별을 슬퍼했는데, 열네 살 오광운은 특히 더 슬퍼했다. 채팽윤은 울고 있는 제자의 손을 잡고 직접 집에 데려다주고 홍성에 내려왔다. 오광운이 제자들 가운데도 어린아이여서 채팽윤이 더욱 더 정을 쏟았다는 점은 추석 때 이별하며 준 시에서도 알 수 있다.⁴⁰⁾

채제공은 『폐추』를 산정하면서 오광운과 함께 배웠던 채팽윤의 다른 어린 제자 관련 작품을 다수 산삭하였다. 스승의 이름은 아명 밑새가 아니라 성년 이후의 자인 영백으로 고쳤다. 채팽윤이 제자들과 준 시는 전고의 활용이 많고 일상적인 수업 때의 상황 및 전별의 뜻을 담은 작품이 많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품을 산삭하고 오광운 관련 작품 중심으로 채팽윤 문하생 관련 작품을 정리하였다. 『폐추』를 통해 채팽윤이 청년기 정치적 좌절을 극복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그들에게 좌절된 경제의 의지를 부탁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신란 이후 영조가 남인을 등용할 때 채팽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면서 과거적으로 승지에 제수하였다. 영조는 그의 문하에서 문과 합격자가 네 명이나 나온 것을 언급하며 특별히 자금을 올려주어 그가 무사히 승지에 제수되도록 하였다. 채팽윤이 제자를 양성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폐추』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1700년대 초반에 그는 동당의 동자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그들이 장성하자 이른바 ‘동벽단 시단’을 열어 18세기 전반에 중요한 남인 문인들을 길러 내었다.⁴¹⁾ 동당의 후배들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화국(華國)의 꿈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그의 문하에서 문과 합격자가 다수 배출되었고, 국포 강박, 약산 오광운 등 18세기 전반 문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훌륭한 문인들이 나왔다.

40) 蔡彭胤, <癸未八月十七日 將觀杜陵 留別書齋諸君>, 『希菴集』 권8. 『폐추』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다.

41) 채팽윤의 동벽단시단에 관해서는 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학활동』, 『민족문화연구』 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참조.

IV. 나가며

이상에서 필사본 『폐추』가 갖는 이본으로서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원고 분량상 본문에서 그 가치를 전부 언급하지는 못한 점이 있어 중요한 몇몇 지점을 언급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폐추』에는 승려와 수창한 시나 사찰의 불사를 위한 모연소(募緣疏) 등의 산문이 실려 있는데, 『희암집』에는 산삭되었다. <억성능사>(憶性能師)⁴²⁾ <중계상인>(贈桂上人)⁴³⁾, <도원상인수시권청산~>(道元上人袖詩卷請刪~)⁴⁴⁾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둘째, 채팽윤은 30여 년 동안 은거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홍성과 서울 사이를 왕복하는데 그 긴 노정에서 지은 작품이 다수 산삭되었다. 시 창작의 장소가 반복적이고 주제가 일상적이며, 몇 수에서 수십 수의 연작이 대부분이라 산정하였던 것이다. <과주>(果州)⁴⁵⁾, <삽교>(插橋)⁴⁶⁾ 같은 작품이 고단한 입장에서 왕복하는 가운데 느끼는 심정을 간결하게 묘사한 수작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불평한 마음을 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도 산삭되었다. <시월초칠일감회>(十月初七日感懷)⁴⁷⁾, <중옥당리차서>(從玉堂吏借書)⁴⁸⁾ 등의 작품에서 채팽윤의 솔직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지만, 체제공의 산정 과정에서 모두 산삭되었다. 그리하여 목판본 『희암집』이 간행될 때, 천재 시인으로 국왕이 그 작품을 주목했던 ‘체학사’의 정제되고 수준 높은 작품 중심으로 문집이 재편되어 세간에 공개되었다.

수원박물관에서 수득하여 이번에 공개한 채팽윤 관련 자료는 문중에서 기증한 것으로 그 가운데 필사본 및 고문서가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필사

42) 蔡彭胤, <憶性能師>, 『弊帚』 권7. 성능에 관해서는 김덕수, 『도총섭 성능(聖能)의 생애와 활동』, 『서울과역사』 112, 서울역사편찬원, 2022.

43) 蔡彭胤, <贈桂上人>, 『弊帚』 권7.

44) 蔡彭胤, <道元上人袖詩卷請刪, 三往三返, 草贈一絕>, 『弊帚』 권7. 겸재 조태억도 <도원상인의 시축에 쓰다>(題道元上人詩軸, 『謙齋集』 卷4)라는 작품이 있는데 위 시와 운자가 도 ‘塵, 人, 新’으로 동일하다. 아마도 도원상인이 본인의 시축에 당대 명인들의 시를 받아 함께 시축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짐작한다.

45) 蔡彭胤, <果州>, 『弊帚』 권3.

46) 蔡彭胤, <插橋>, 『弊帚』 권6.

47) 蔡彭胤, <十月初七日感懷>, 『弊帚』 권4.

48) 蔡彭胤, <從玉堂吏借書>, 『弊帚』 권5.

본 문집 『폐추』는 그간 간행본에서 알기 힘들었던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이 『폐추』 연구의 관심을 상기하고 채팽윤 문학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기초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현일, 『갈암집』(葛庵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조태억, 『겸재집』(謙齋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채유후, 『호주집』(湖洲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채제공, 『변암집』(樊巖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채팽윤, 『폐추』(弊帚),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
_____, 『희암집』(希菴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 강준흠, 『삼명시화』,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소명출판, 2006.
김덕수, 『도총섭 성능(聖能)의 생애와 활동』, 『서울과역사』 112, 서울역사편찬원, 2022, 49~86면.
박경수, 『희암 채팽윤의 만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박동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문헌과해석』 80, 문헌과해석사, 2017, 165~177면.
_____, 『조선시대 양자(養子)의 한 풍경 - 채팽윤의 한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60, 한국고전번역원, 2022, 283~311면.
백승호, 『변암 채제공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학활동』, 『민족문화연구』 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99~254면.
여운필, 『희암 채팽윤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9, 237~282면.
윤재환, 『근기 남인 문단에서 변암가 문학의 위상 : 채유후, 채팽윤, 채제공을 중심으로』, 『고전과해석』 41,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23, 325~350면.
이경유, 『창해시안』, 장유승, 부유섭 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이종묵,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 남호편』, 경인문화사, 2016.
_____,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 서호편』, 경인문화사, 2016.

On the different version of Chae, Paengyun's Literary collection
- Especially on Manuscript *PyeChu*, the Abandoned Broom -

BAEK, SEUNGHO

This paper introduces the new manuscript *PyeChu* and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the work that were omitted when it was published from a manuscript to a woodblock version. At the 2023 exhibition of SuwonHwaseong museum, the manuscript of Chae Paengyun's collection of works was revealed. The woodblock version *Huamjib* is in 29 volumes, while the manuscript version *PyeChu* is in 18 volumes. Although the number of manuscripts is small, the number of works is greater than the woodblock version. The main trends in works deleted when published from manuscript to woodblock edition are as follows.

First, many daily literary exchanges with in-laws were deleted. His literary activities were often carried out together with his father-in-law and brothers-in-law. Most of these works were deleted, and when published, they were included sporadically without any context. Because of this, the background of literary activities is not well understood. The manuscripts provide data to specifically understand the spatial context of his literary activities.

Second, the aspects of friendship with the same party writers involved in Tagnam or Musinlan were deleted or reduced. Chae passed the civil exam the year of Gisahwangug occurred and was selected for the Dogseodang. Most of the writers who were selected at this time were writers who were classified as Tagnam. He had a deep relationship with them, and this friendship is evidenced by manuscripts. In the woodblock version, their friendship is greatly reduced. This meant that his grandson categorized his grandfather as an Cheongnam and reduced the level of interaction during the political situa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Third, Chae's aspect to educate his young students with care and nurture them into national talents in the future has been reduced. He put effort into nurturing younger students in an unfavorable political situation after Gabsulhwangug. Among

those students was Chae Jegong's teacher Oh Gwangun. *PyeChu* contains Oh's name from his childhood, and expresses the special affection Chae had for him as a son. In the woodblock version, the works about Oh and other young disciples are greatly reduced, and Oh also appears by name as an adult. Repetitive works on poetry learning and daily life were eliminated, and works related to Chae's disciples were organized, focusing on Chae Jegong's teacher Oh.

Key words: Chae Paengyun, *Huamjib*, *PyeChu*, Manuscript, Different version

접수일자: 2024. 3. 31. 심사기간: 2024. 4. 1.~2024. 5. 10. 게재결정: 2024. 5. 10.
--

